태고종 제21세 종정에 운경 스님 추대

12월 5일 원로회의서 만장일치
"종단 발전에 전심전력하겠다"
대종사 특별법계 품수도 인준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12월 5일 열린 태고종 원로회의에서 제21세 종정으로 추대된 운경 스님.

태고종 제21세 종정에 서울 백련사 회주 운경 스님이 추대됐다. 전 종정 지허 스님의 원적으로 공석이었던 종정이 새롭게 추대되면서 태고종단의 화합과 안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태고종 원로회의(의장 도광)는 12월 5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종정추대회의를 개최하고 운경 스님을 제21세 종정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원로회의에는 원로의장 도광 스님를 비롯한 원로스님들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 호법원장 혜일 스님 등이 참석했다.

제21세 종정으로 추대된 운경 스님은 "부족하고 모자란 본인을 종단의 종정으로 추대해줘 감사드린다"며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뜻을 맞춰 태고종단의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하겠다. 원로스님들께서도 많은 일깨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수락 법어를 내렸다. 태고종 종정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운경 스님은 1959년 서울 백련사에서 설호 스님을 은사로, 금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백련사 강원 사미과 및 사교과를 수료하고, 법륜사와 선암사에서 대교과를 졸업했다. 1975년 묵담 스님을 계사로 대승계 및 비구계를 수지한 운경 스님은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백련사 상임법사, 태고종 종무위원, 태고종 보건공제회 전무이사, 월간불교사 주간 등 종단 내 굵직한 소임을 두루 맡아 종단 발전에 앞장서 왔다.

1996년부터는 백련사 주지로 부임한 후 수행에 매진했으며, 2002년 태고종 종권수호위원회 위원을 맡아 후학양성에 기여했다. 2016년에는 23개 한문 불교 경전과 서문에 토를 달고 해석한 '제경요제'를 발간해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후학들의 공부를 독려했다. 2017년 태고종은 운경 스님에게 태고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내렸고, 2018년 태고종 원로회 원로의원으로 위촉했다.

태고종 원로회의에서는 18명의 스님에 대한 대종사 특별법계 품수도 인준했다. 원로의장 도광 스님은 "원로회의법 제7조 1항 8호 및 법계법 제9조 3항 조항에 의거해 2023년도 대종사 특별법계를 신청내용과 같이 승인한다"며 "대종사 법계를 신청한 18명의 스님에 대해 태고종 총무원의 철저한 자격 검증을 거쳐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을 시행하고 법계품수를 인준한다"고 밝혔다. 대종사 특별법계를 품수한 스님은 혜일 · 지명 · 운설 · 정진 · 지현 · 수진 · 동환 · 수열 · 성보 · 대성 · 종민 · 지상 · 혜일 · 도광 · 대주 · 성오 · 명운 · 덕혜 스님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원로회의에 앞서 "오늘 원로회의는 종단 발전을 위해 한 발 나아가는 자리"라며 "선배스님들이 지금껏 하고 싶었지만 못하고 있던 일들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 보필하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앞으로도 종단 정세를 비롯한 아픔, 발전 방향 등 종단의 다양한 이야기를 원로의원스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많은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원로의장 도광 스님과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품청으로 종정 추대 절차를 마무리했다.

조계종, 내년도 승가고시 일정 확정

내년 4월 4일 '1급 승가고시'
고시위원에 영덕 스님 위촉도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수진)가 12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불기2568(2024)년도 각급 승가고시 일정'을 확정했다.

비구 대덕, 비구니 혜덕 법계를 수지한 승납 25년 이상 스님들이 치르는 '1급 승가고시'는 내년 4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된다.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승납 20년 이상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2급 승가고시'는 내년 10월 10일 중앙승가대에서 시행된다. 응시접수는 내년 8월 12일부터 26일까지다. 승납 10년 이상 스님들이 치르는 '3급 승가고시'는 내년 4월 25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린다. 응시원서 접수일은 내년 2월 19일부터 3월 4일이다.

'4급 승가고시'는 내년 3월 21일 중앙승가대에서 진행된다. 4급 승가고시는 사미와 사미니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응시할 수 있다. 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5급 승가고시'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치러진다. 상반기는 내년 3월 11일, 하반기는 내년 8~9월로 제8교구본사 직지사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제66기 사미 · 사미니계 수계교육 일정에 따라 고시일과 고사장이 변경될 수 있다. 조계종 교육원은 내년 승가고시 일정을 12월 22일 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조계종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새 고시위원에 운문사승가대학장 영덕 스님을 임명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조계종 승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고, 영덕 스님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내영 기자

"삼독심 벗어나려면 참회하세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국회정각회 법문

태고종 총무원장으로서 처음
'삶의 평화와 진리' 주제 법문
김진표 의장 방문, 차담 나눠



"삼독심, 즉 탐심과 진심, 치심이란 독사가 마음에 있으니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겁니다. 삼독심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사진>은 12월 7일 국회 정각선원에서 열린 '국회정각회 12월 정기법회' 법사로 참석해 불자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에게 감로법문을 설했다. 법회에는 주호영 정각회장을 비롯해 이원욱 · 임호경 · 정성호 · 조명희 의원과 천우정 국회 직원불자회장 등 사부대중 30여 명이 참석했다.

현직 태고종 총무원장으로서는 처음 국회 정각선원 법석에 오른 상진 스님은 법회 참석 대중에게 '삶에 평화의 진리'를 주제로 법문을 내렸다.

먼저 〈천수경〉의 '아석소조제악업(我昔所造諸惡業) 개유무시탐진치(皆由無始貪瞋癡) 종신구의지소생(從身口意之所生) 일체아금개참회(一切我今皆懺悔)'라는 '참회게(懺悔偈)'를 대중에게 상기시킨 상진 스님은 참회를 통해 탐진치에서 벗어나야 함을 당부했다.

상진 스님은 "탐심은 욕심내는 마음이고 진심은 화내는 마음, 치심은 어리석은 마음"이라며 "이 삼독심이 일어나는 죄를 짓는 곳은 몸과 입과 마음이다. 신 · 구 · 의로 우리는 십대 죄악을 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를 지었으면 참회해야한다. 그래서 '참회게'와 '십악참회' '참회진언'이 〈천수경〉에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서로 삿대질하며 싸우는 것들 보게 된다. 이게 바로 악구(惡口)다. 지어진 죄업을 쌓아놓지 말고, 참회진언을 외면서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상진 스님은 '오종대은명심불망(五種大恩銘心不忘)'이란 경구를 소개하며 우리 사회가 5가지 큰 은혜를 새기고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명심해 잊지 말아야 할 5가지 큰 은혜는 △모든 제도 갖추어서 잘살게 한 국가의 은혜(各安其所國王之恩) △고통 속에 낳아 기른 하늘같은 부모의 은혜(生養劬勞父母之恩)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해주신 스승의 은혜(流通正法師長之恩) △의식주의 어려움을 돌봐주신 시주의 은혜(四事供養檀月之恩) △갈고닦고 이끌어서 성공케한 친구의 은혜(琢磨相成朋友之恩)다.

상진 스님은 "오종대은명심불망이란 큰 은혜를 우리 국민들은 잊어서는 안된다. 저는 항상 '은혜 입은 일은 대리석에 새기고, 원한 맺은 일은 모래에 새기라' 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원한을 대리석에 새긴다"고 지적하면서 "부처님은 착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 진실과 진리를 가질 수 있다. 착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참회를 잘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불평과 불만 같은 부정적 마인드보다는 긍정적 마인드로 인욕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진 스님은 법회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차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상진 스님은 김 의장에게 목판본 반야심경을 선물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로 국민의 평안과 행복을 도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는 태고종 총무원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 재경부원장 고담 스님, 총무부장 도성 스님, 재경부장 효능 스님, 문화부장 처명 스님, 사회부장 도휘 스님, 규정부장 진화 스님, 사서실장 원오 스님 등이 배석했다.

신중일 기자



광화문 앞 도로를 지나며 오체투지를 이어가는 스님과 장애인부모연대 구성원들.

"차별 없는 세상, 통합사회 발원"

조계종 사노위 · 장애인부모연대, 12월 7일 오체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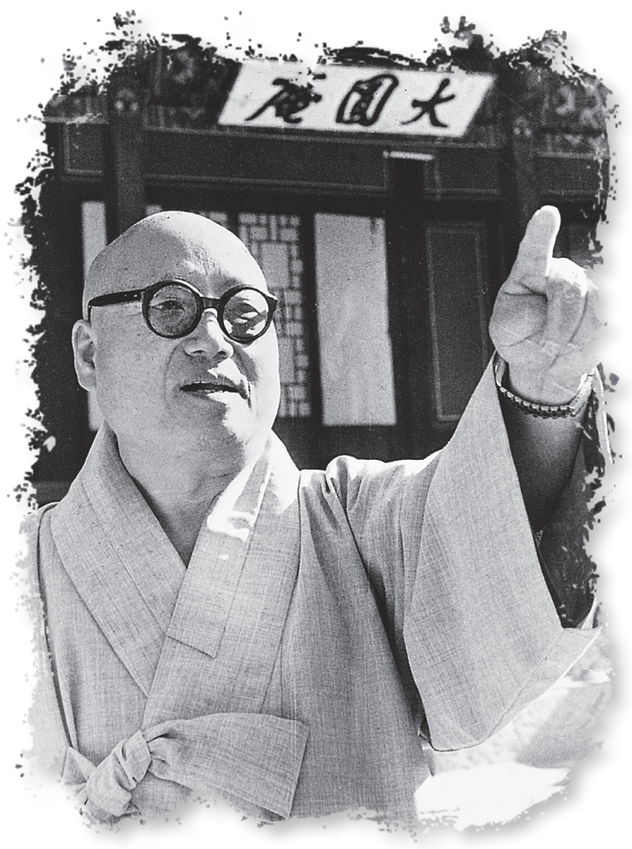
지난해 11명, 올해 8명. 매년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및 정책 부족을 이유로 세상을 등진다.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완전한 통합사회를 발원하는 오체투지가 열렸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2월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부터 서울시청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위한 주거서비스 보장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11월 15일 제주를 시작으로 경남, 부산, 울산, 경북, 대구, 전남, 광주, 충북, 대전, 경기 등 전국 11개 지역을 돌며 오체투지를 펼쳤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도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뜻에 깊이 공감,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서울 오체투지를 함께했다. 서울 오체투지에는 위원 혜도 · 원경 · 보현 스님이 동참했다.

오체투지에 앞서 혜도 스님은 "매년 끊이지 않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 소식에 가슴이 답답하다. 정부 정책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타살과도 같다"며 "발달장애인이 시설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자립생활이 보장돼야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다. 그래야 참사도 멈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정 서울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의 선포로 500여 명 동참자가 서울시청을 향해 오체투지를 시작했다. "발달장애 차별을 멈추라"는 구호에 맞춰 세 걸음을 걷고 온몸을 바닥에 던졌다. 1.2km 구간을 이동한 후 서울지역 결의대회를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김내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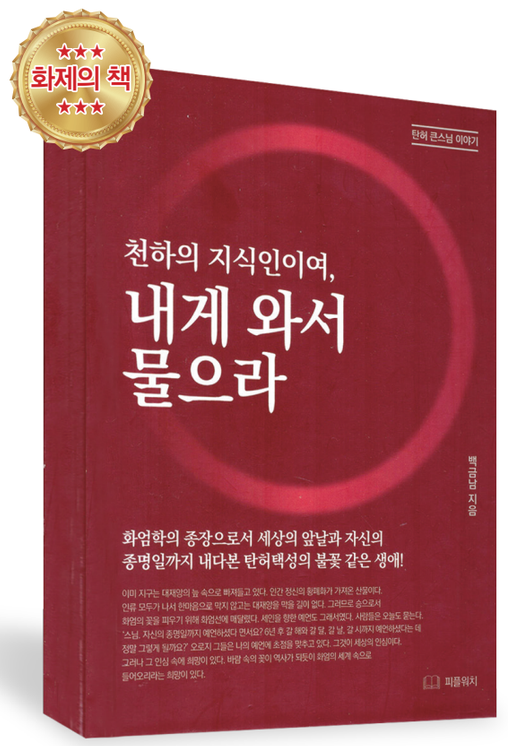


『십우도』의 작가 백금남이 그려낸
탄허 택성의 불꽃 같은 생애!

천하의 지식인이여,
내게 와서
물으라
백금남 지음

오대산 월정사의 조실로서 특히 예언에 밝았던 탄허당 택성 대종사. 작가는 자신의 종명일까지 예언한 스님의 일생을 추적하면서 왜 그가 화엄학에 그토록 몰두했는지 이해하게 된다. 수많은 그의 예언들. 그것이 허명에 의한 술(術)의 경지가 아니라 도(道)의 경지에 입각한 것임을 깨닫는다.

사람들은 오늘도 묻는다. '스님. 자신의 종명일까지 예언하셨다면서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오로지 그들은 나의 예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이 세상의 인심이다. 그러나 그 인심 속에 희망이 있다. 바람 속의 꽃이 역사가 되듯이 화엄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리라는 희망이 있다.



펴낸곳 피플워치 양장본 533쪽 | 26000원 연락처 02-352-3861